

# “불꽃처럼 살다 간 그들이 꿈꾸었을 세상 담아냈어요”

## ■공동 창작극 ‘오, 18’로 제 2회 5·18청소년연극제 으뜸상 수상한 한빛고

지금 우리와 나이가 같은 1980년 5월 당시 열여덟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었을까.

5·18기념재단 주최로 지난 26~28일까지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제 2회 5·18청소년연극제’에서 한빛고가 공동 창작극 ‘오, 18!’로 으뜸상을 수상했다.

‘오, 18!’은 의무감에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간 찬희 등이 1980년 5월 당시 열여덟살이었던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꾸었던 꿈과 현재 자신들의 꿈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극에 참여한 19명의 학생과 서호필(44) 지도 교사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대본을 써내려갔다.

완성된 대본이 나오기 전까지 80번이 넘는 수정 작업이 진행됐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대본이 그대로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도 3번이나 됐다. 대본이 양에 차지 않아 대화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보통 5·18 하면 비참하고, 아프고, 슬픈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인물들을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좀 더 친숙한 사람들로 그리고 싶었어요. 1980년에 열 여덟이었던

친구들 역시 지금 우리와 같은 몸짓,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았던 김가람(18·2년)양은 “개성 강한 친구들과 공동창작을 하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힘들었지만 토론과 대화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내 뿌듯했다”며 “대회 기간 중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합숙하고 관객과의 대화 등을 진행한 것도 인상에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는 연극 동아리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보통 연극제는 아이들의 연기를 중요시하는 등 기성 극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죠.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5·18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데 의미를 뒀고, 연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일반 아이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서호필(44) 지도교사는 “작품 속 주인공들이 자신들과 같은 또래라 보니, 아이들이 단순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고민하며 작품을 완성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이 주최한 ‘제 2회 5·18청소년 연극제’에서 공동 창작극 ‘오, 18!’로 으뜸상을 수상한 한빛고 학생들. (한빛고 제공)

이번 연극제에서는 전남여고가 비극상을, 순천여고·용문고·전남예고·대전여고가 추진상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선례 답습하거나 남 따라하면 안돼”

임권택 감독, 다산강좌 초청 강연



“선례를 답습하거나 남을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 앞선 사람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은 지난 26일 강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다산강좌 초청 강연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내가 만든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노력이 지금껏 감독생활을 하게 한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이날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고 그래야 그 성과도 크다”며 “아직까지는 내가 얻었던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한국영화를 할리우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겠다는 야심찬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제작 여건에 좌절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판소리, 즉 서편제가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 이소연, 中 금계백화장영화제 여우주연상

배우 이소연이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14일부터 열린 제16회 중국 금계백화장(金雞百花獎) 영화제의 외국영화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7일 소속사 스타제이에 따르면 이소연은 26일 장수성 주저우에서 열린 이 영화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소연은 수상 소감으로 “아시아 최고 배우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예상하지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가슴 벅차다”고 밝혔다.



## 조인성·김아중, 영화의날 ‘유망 영화인상’

‘가족의 탄생’의 김태웅 감독과 배우 조인성, 김아중이 제45회 영화의날에 유망 영화인상을 받는다.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신우철)는 31일 오후 6시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5회 영화의날 기념식을 열고 각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한 영화인에게 상을 수여한다.

유망 감독상은 김태웅 감독이, 유망 남자연기자상은 조인성이, 유망 여자연기자상은 김아중이 각각 받는다.



# “광양만권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설 것”

## 취임 1돌 맞은 장만재 순천대 총장

“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 EXPO 개최와 광양만권 도시 통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지난 2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만재(49) 순천대 총장은 총장 취임이후 줄 곳 순천대학교를 전남지역 대표 국립 대학으로 발돋움시켜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위권 종합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전념해 왔다.

장총장은 이를 위해 ‘광양만권 중심대학’에 부합되는 세 교명 공모에 나서며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된 연구와 고급 실무인력 양성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산학 협력을 비전으로 제시 했다.

지난 1년간 장총장은 정부 부처를 순회하며 400여 억원의 국책사업을 수주했고 80여명의 사업은 최종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이미 수주한 국책사업만도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



업고도화 IT연구소 운영 140억원 ▲전남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사업 51억원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50억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24억원 등 다양하다.

장총장은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을 재구성하고 전공 폐지 및 통합학 등 혁신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학특성화를 위해서도 바이오와 기계우주, 신소재, IT, 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남도문화생태, 문화, 디자인 인력양성, 공공서비스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총장은 “학교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교문 주변에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개방적 소광장을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대학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포스코 청암재단, 아시아 유학생 59명에 장학금

포스코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한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26일 한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시아 학생 59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이구택 재단이사장과 파르타사라티 주한 인도 대사, 포스코 아시아펠로우십 협력대학인 한국의국어대 박철총장 등 외교계,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일보, 광주·전남 기자협 배구대회 우승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김옥조)는 28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서향순 앙금장에서 ‘2007 가을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신문·방송 등 회원사가 참여, 배구 경기를 벌였으며 광주 일보가 우승했다. 최우수 선수로는 본보 김여울(왼쪽에서 두번째) 기자가 선정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수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광주·전남 수의사회(공동운영위원장 김성환·부위원장 김창렬)는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KIA타이거즈 ‘2007 호랑이가족 한마당’



KIA타이거즈가 주최한 ‘2007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팬 300여명과 선수단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KIA타이거즈 제공>

## 박정현 청구중건회상 ‘경찰의 날’ 감사장

박정현(수청구종합건설 회장)이 제 62회 경찰의 날을 맞아 감사장을 받았다.

박 회장은 최근 열린 제 6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년간 벌여온 사랑의 집 개보수, 불우 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등 복지 활동 등 지역 사회 및 경찰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건설 문화 대상도 수상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이채순씨 3남 김석중(SK케미칼 대리)군 권관택(전남일보 이사·경영본부장)씨 차녀 지연영=11월3일(토) 오후 1시 KT빌딩 4층 예식홀.

▲김상욱씨 차남 문순교 정재명씨 장녀 미국(청구종합건설 대리)양=11월4일(일) 오후 1시20분 경북 구례명동 2층 고운홀.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 ▲경기도 광주·전남 총동창회(회장 정두채) 모임=31일(수) 오후 7시 무안군 청계면 구로나무. 061-452-5531
- ▲광주 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11월4일(일) 오후 6시 백운산 회관. 222-4569

## 향우회

▲재광 보성을 향우회(회장 안영섭) 모임=29일(월) 오후 6시30분 미원 회타운. 226-4743

## 모집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 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방무청 현역인영팀 230-4246~9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김정희씨 별세 송건(대호건축 대표)·전(한남대 교수)·한(비전 네트워크 미주지사장)·혁(전 대우증권)·학(순천 효천고 교사)씨 모친상 =발인 30일(화)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노진영씨 별세 관승(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광주지점장)·관승(광평군청)씨 부친상 전봉준씨 부부상=발인 30일(화)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382

▲손정자씨 별세 박정열(재미 과학자)·종렬(번호사)·지열(사업)씨 모친상 박승(사업)씨 부모상=발인 30일(화)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600-7406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광주광역시)  
고품격/저비용/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대표주재방-

**승정장례식장**  
T.062-941-4400 (구원곡리4사거리)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정님묘특별분양  
문의 (062)222-0201